

순천에 아파트형 표준공장 건립

전남도 율촌자유무역지역내 191억 투입…중소수출기업 지원

2014년부터 입주업체 모집

전남도는 지역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 율촌자유무역지역 내에 아파트형 표준공장을 건립한다.

율촌자유무역지역 아파트형 표준공장은 국비 124억원·지방비 67억원 총 191억여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3000여㎡에 3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오는 2014년부터 입주업체를 모집해 입주시킬 계획이다. 올해는 국비 5억6900만원을 확보해 6월부터 건축 설계용역을 시작한다.

자유무역지역 내 아파트형 표준공

장 입주 업체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월 655~723원/㎡) 혜택이 주어지고 법인세·소득세 감면, 행·재정적 지원도 이뤄진다.

입주 조건은 국내기업의 경우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 연속 1년 이상인 기업이거나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다. 또 지역 산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출기업 간 상호 협관 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율촌자유무역지역은 총 부지가 34만 3600㎡로 이중 공장 용지가 26만 9000㎡다. 지난 2010년 완공돼 입주

가 시작됐으며 현재 6개 동 7만6000㎡의 입주가 완료됐고 입주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율촌자유무역지역이 전남 수출의 근거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남도 윤순선 신성장동력과장은 “전남테크노파크와 지식경제부 율촌자유무역지역원 간 아파트형 표준공장을 활용한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특히 광양 철강산업과 연계한 경량재부품·IT 융복합 자동차부품소재 기업 등 고부가가치 수출 유망기업을 유치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흥학당’ 연찬회 400회 대기록 세웠다

1994년 출범 18년만에



‘장흥학당’이 지난 5일로 창립 한자 18년만에 400회 연찬회 기록을 세웠다.

장흥학당은 지난 1994년 11월 당시 손수의 전 교통부장관을 중심으로 지역 유지를 구성된 사단법인 비영리 순수 민간단체로 출범했다.

그동안 ‘고향사랑 운동’과 주민 의식 개혁 일환으로 장흥지역을 대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오며 전국 정계·학계·문화계, 유명 인사를 초빙해 지역민들에게 새롭고 알찬 연찬 기회를 제공해 왔다.

지난 5일에는 연찬회 400회를 맞아 송해의 광주지방법원 장흥지 원장을 초빙, ‘행복 추구권을 통해 본 현법과 우리생활’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실시했다.

송지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행복 추구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정사례를 들면서 자기운명 결정과 성적 자기결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학당은 지난 1994년 11월에 사단법인 회원 300여 명으로 출범, 지금까지 전국 유명강사를 초빙, 정치·경제·일반상식

등 400회에 이르는 조찬 연찬회(월 2회)를 비롯해 ▲각종 산업·문화탐방, 건설현장 등을 탐방하는 연수회 67회 ▲국회의원, 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견증을 위한 토론회 31번 개최 등 장흥의 실질적인 리더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북취재본부=김용기자 kykim@

해남 문내면에 간이양수장 설치 농업용수 공급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안인섭)이 해남군 문내면 일대에 간이 양수장을 설치해 영농철 기름해 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영산강 사업단은 해마다 농업 용수난에 시달렸던 문내면에 최근 간이 양수장(시간당 130㎥)을 설치해 문내면 일대 1782㏊와 영산강 III-2지구 화원 1공구 간척농지 625㏊의 눈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있다.

이들 지역을 단지별로 나눠 금호호의 풍부한 물을 순차적으로 공급,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안수습 사업단장은 “영산강III-2지구 회원1공구는 지난 2004년에 준공한 간척 농지로, 지역 주민의 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봄 가뭄이 길어져 저속적으로 농업 용수를 공급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군은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주민에게 공개, 기

담양군 봉산 한마음 수박작목반(대표 김용구)에서 수박출하 작업이 한창이다. 작목반은 무농약 재배 인증을 획득하고 당도가 12 브릭스(Brix) 이상인 수박을 선별하는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달지 않은 수박은 통과 못해”

담양군 봉산 한마음 수박작목반(대표 김용구)에서 수박출하 작업이 한창이다. 작목반은 무농약 재배 인증을 획득하고 당도가 12 브릭스(Brix) 이상인 수박을 선별하는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담양군 제공>

“성공 농민 생생한 경험담 들어보세요”

전남도 농업계 고교 4곳서 선도농업인 사례 특강

성공 농민들이 일선 농업계 학교 강단에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준다. 전남도는 6일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농업인을 위해 선도농업인의 사례를 소개하는 특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도 각 분야에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업인의 창업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달, 창

업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일정은 ▲6월 13일 고흥산업 과하고, 강성재 고흥군유동 대표 ▲7월 18일 전남생명과학고, 조호연 태 이영농조합 대표 ▲9월 12일 장성실업고, 김상식 두리농업 대표 ▲10월 29일 전남자연과학고, 이동현 미실란 대표의 강의로 진행된다.

현재 전남도에는 7개 농업계 고등

학교가 있으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4개 학교를 선정해 우선 추진한 후 학생 만족도를 평가해 대상 학교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손영호 농업정책과장은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귀농인 유치활동과 함께 농업계 학교 졸업생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지적공사 함평지사 다문화가정 무료 토지측량

대한지적공사 함평지사(지사장 김기만)는 최근 손불면 월천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신축 예정지 토지측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함평지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키로 한 기초 수급자이면서 외국인 처와 자녀 2명과 생활하는 전모씨의 토지 경계 측량을 무료로 해줬다.

김기만 지사장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강진군 기금운용 성과 ‘전국 우수’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수상

강진군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종합 결과에서 전국 우수 차지단체로 선정됐다.

전국 244개 차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성과 분석에서 군은 세입구조·세출관리·재정관리·투명성 4개 분야, 총 12개 지표에서 전국 상위 10%인 S 등급을 받아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군은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주민에게 공개, 기

금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몰제 적용으로 유사·중복 기금을 통합해 불필요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용으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100점 만점에 95.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 전남 1위, 전국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방 차지단체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 성과분석을 실시해 우수 단체에 포상하고 있다.

특히 군은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주민에게 공개, 기

농협 안성교육원 목포·신안서 현장 교육



뤄졌으며, 목포·신안 관내 10개 농협 조합장과 상무, 지도담당 직원과 공선출하 조합원 8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 안성교육원은 교육혜택을 못 받는 조합원을 위해 주산지 현장에서 연 14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힐링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봉괴된 묘, 개인이기주의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게 달하고 있습니다.

● 비변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신사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입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소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서 거친 자연환경과 천자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이태리가구 50% SALE

첫 파격세일 25일까지

소파, 식탁/좌탁, 라텍스 매트리스

쇼핑몰 www.hong79.com



홈스페이스 ▾

검색



앤틱식탁

100% MADE IN ITALY

고객님의 매트리스는 아래와 같습니까?

머리 5% 어깨 15% 척추 60% 엉덩이 15% 허벅지 5% 종이리 5% 다리 5%

수면시 힘의 분포도

던롭필로 샵사 라텍스 침대



모던소파

100% MADE IN ITALY



친환경 원목가구 식탁, 소파, 침대

스페셜가 1899-0240